
2021년 7월 21일 평동교회 수요성서연구 자료 - Ver.1 공동읽기와 묵상

제목 : 레위기 10. 정결과 거룩(1)

본문 : 레위기 11장 39절~47절 /

(레 11:44)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 정결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레위기 11~15장은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6~17장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가운데두고 바로 앞인 11~15장에서 정결법이 그리고 18~20에서 성결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10장에서 일어났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뒤에 16장으로 바로 이어져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더욱 16장은 바로 10장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15장을 통하여 레위기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중요함을 독자들에게 되새기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자세한 내용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 #. 먼저 11~15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11장)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규례(12장)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13장)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14장) 그리고 몸의 유출에 대한 규례(15장)를 각각 소개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각각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그 내용들은 실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각 상황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내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이런 기준을 이야기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 1)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루는 11장은 먹거리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면에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나눈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 2) 각 영역에 있어서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언급하면서 주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부정함과 가증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기준들은 당시로서는 실생활과 관련되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3) 먹거리의 문제는 단순히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기의 이런 먹거리 기준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를 통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 거룩을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먹거리의 기준에 대한 문제와 함께 11장 후반부에서는 부정함이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의 부정함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결함이 여러 다양한 차원과 의미로 존재했던 것처럼 부정함 역시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이런 거룩함 - 정결함 - 부정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과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11~15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의미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미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결하지 않은 상태(부정함)로 접촉하게 되면 가치없는 심판과 재앙을 맞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을까요?

#.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존재방식이었으며 나아가 그와 관계된 모든 것에 요구되는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룩함은 구약과 신약에서 사뭇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작동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경우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1)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나누고 구분한다고 해도 정결함을 올바르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결함은 얼마든지 쉽게 부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정결함이 깨어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정결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반드시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결이란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함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신앙자세는 위태롭습니다. 레위기에서 기록된 부정하게 되는 사례들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3) 11장의 정결법을 정리하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하고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 12장의 출산을 한 여인(산모)에 대한 규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창조 명령에 따른 생명의 출산을 담당하는 여인의 입장을 생각할 때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남자와 여자를 출산할 경우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들도 다소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후정결법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살필 때에 부차적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정결함을 통하여 거룩함을 담아내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자기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